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Impact of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on Mental Health among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Resources -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박주희**

Dept. of Social Welfa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ark, Ju-He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the experience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child abuse) on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and to explore whether social support acts as a moderator between domestic violence and mental health. Through this process, I intended to provide a reference base to suggest substantial interventions for family welfare by helping students to overcome negativ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s and adapt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established a conceptual framework by considering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with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s a dependent variabl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child abus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the

* 이 논문은 2016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박주희(pjh@sungshin.ac.kr)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The subjects composed 747 college students in 8 colleges in Seoul. The main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all the subjects of this study had substantial experience of violence at home and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These students scored 3.83 points in social support,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mplying that these students had a higher awareness of social support. Moreover, their mental health score was 3.50 points, which is higher than the median of 3, indicating a somewhat positive tendency toward mental health. Second, to explore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child violence experience and mental health, gender, age, financial status, academic-performance, child abuse and social support were input in the first step, and then buffering effects were examined by entering an interaction term to the first step in the second step. There was a significant interac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Therefore,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having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violence and mental health. Third, the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mental health revealed that social suppor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ental health in the first step. By contrast, the interaction term of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and social support showed no significance, indicating no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second step. To sum up, social support served as a moderator for mental health among college students with child abuse experience, but had no moderating effect on witnessed interparental conjugal violence experience.

Key Words : 대학생(College Students), 가정폭력 노출(Domestic-Violence Exposure Experience), 사회적지지 자원(Social Support Resources), 정신건강(Mental Health)

I. 서론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녀폭력과 관련해서 성장기의 많은 환경적인 위기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경험은 자녀의 정신건강을 크게 위협하게 되며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가족부(2013)의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7.6%였으며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에서는 ‘부모 간에 심한 욕설이 오고가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0.5%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가족부(2010)의 가정폭력실태조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학대를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9.1%였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폭력이 29.2%로 나타났고 정서적 폭력의 발생률이 52.1%로 조사되었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

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에 처해 있거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Wolfe et al. 2003; Holt, Buckley & Whelan, 2008), 가정폭력이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하는 부정적 산물의 매우 강력한 요인이라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김세원, 2003; 이영미, 민하영, 이운주, 2005; Brunstein-Klomek, Sourander & Gole, 2010; Bancroft & Silverman, 2002; Boles & Mitto, 2003).

한편, 대학생 시기에 해당하는 청년층들은 인간의 발달과정상 아직 인지·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아직 청소년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미약하다고 본다. 따라서 대학시절에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 이후 성인기에 도 지속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Goldblatt, 2003; Ringeisen, Casaneuva, Urato & Stambaugh, 2009; 김지현, 2012에서 재인용). 더욱이 대학생 시기는 미래 사회인으로서 주어진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초기 성인기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 욕구에 대하여 복잡하고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대인관계나 대학생할 적응의 어려움, 학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을 겪게 된다. 실제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표된 우울증에 관한 논문을 고찰한 연구(Ibrahim et al., 2012)에 따르면 대학생의 우울 평균 유병률은 30.6%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의 정승교와 김춘길(2010)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우울경험 정도가 52.6%보고되어 있어 대학생들의 우울증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울은 대학생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문제이며(Lyubomirsky, Kasri & Zehm, 2003), 우울이 높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의 경우 자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Bridge, Goldstein, Brent, 2006; Drum & Denmark, 2012).

이와 같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적 징후들은 자신과 가족, 주위 사람들의 고통과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의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성장기의 가정폭력에 노출과 같은 가족 위기적 경험은 초기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대학생들의 건강한 삶에 필요한 구체적 조건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접근은 매우 필요하다. 그런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경험 연구들을 보면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정숙·구형선·조인주, 201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김하나·김혜련·최윤신, 2011), 가정폭력 경험과 행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효과(김민경, 2011a) 등 일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가정폭력의 경험은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이기 때문에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에 초점을 두고 정신건강에 영향 및 개입 개입방안 등을 탐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가족 안에서 발생된 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학문적 규명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ohen & Mckay(1984)는 사회적 지지 자원에 따라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건강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스트레스 완충가설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사회적 지지 자원이 스트레스를 완화(Cohen & Hoberman, 1983)시키거나 효과적인 대처수단으로 작용(Goldblatt, 2003; Thoits, 198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폭력에 노출되었어도 사회적 지지 자원과 같은 보호요인들을 통해 폭력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정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자원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들에서만(김난영, 2008; 정진아, 2005; 이옥형, 2012) 사회적 지지의 유용성을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대학생의 가정폭력의 직접적 노출과 부모간의 폭력

목격에 노출된 간접 경험에 따른 정신건강의 관계 및 사회적지지 효과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정폭력의 직접적 노출과 부모간의 폭력 목격에 노출된 경험을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자녀폭력으로 분류한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간의 폭력 목격과 자녀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 자원의 효과성 여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정폭력 노출경험(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폭력), 사회적 지지, 정신건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 자원은 가정폭력 노출 경험(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폭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조절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정폭력 개념 및 유형, 실태

가정폭력은 학자들에 따라 가정폭력의 정의와 접근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Straus & Gelles (1990)는 가정폭력의 개념을 ‘가족구성원간의 폭력행태로서 가족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 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은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이 있다. 1998년 7월에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법제처 홈페이지). 장덕희(2001)는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로 규정 하였다. 한편,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많이 보고되고 있는 유형이 바로 부부 폭력과 자녀학대이다(김재엽·이서원, 1999; 이호택, 2012). 이는 자녀가 가장 접할 확률이 높은 유형의 가정폭력이 바로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학대 피해경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이호택, 2012). 또한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만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한다(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이상의 정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부부폭력 목격)과 대학생 자신의 직접적 폭력 경험인 자녀폭력 경험으로 정의하고 이 두 유형별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한편 가정폭력 노출 실태를 살펴보면 김재엽, 양혜원 과 김희수(2005)은 지난 1년 동안 부모간 폭력 목격률은 37.6%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 33.4%, 신체적 폭력 22.4%로 나타났다. 김재엽(2001)의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상호연관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자녀학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호택(2012)의 한국 청소년 패널(KYPS)의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한 가정폭력의 유형은 부모간의 언어폭력으로 약 40%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노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모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간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0%, 부모로부터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에 달하는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폭력 노출된 청소년들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 정신건강의 개념 및 대학생의 정신건강 관련 요인들

정신건강이란 용어는 초기에 정신질환의 유무를 지칭하기 위한 정신 병리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과거에는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심리 정서적 문제로 다루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족체제, 사회 심리적 환경, 또는 사회문화적 체제 등의 환경체제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김지현, 2012). 이러한 특성으로 볼 때 정신건강이란 정상적인 개인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편적인 용어로 그 개념을 정의하기도 한다(장성화·진석연, 2009). 김재화(2007)는 정신건강을 모든 종류의 개인적·사회적 적응을 포함하며 어떤 환경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건전하고 균형 있고, 통합된 성격의 발달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이상과 같이 정신건강의 개념에 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이들을 요약한다면 한 개인이 심리내적·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여 질적 삶을 영위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로의 이행단계

에 있는 대학생들은 과다한 학업량, 진로개척, 또래간의 경쟁,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다(Hunt & Eisenberg, 2010). 이 시기는 발달단계상 미래 사회인으로서 주어진 다양한 사회적 도전과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초기 성인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부담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대인관계나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울, 분노, 무기력 등의 심리·정서적 증상은 물론 두통, 위통 등과 같은 생리적 증상과 울음, 비난, 강박적 행동과 같은 다양한 역기능적 행동 장애와 증상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상민·남숙경·이미경, 2009). 이은희(2004)는 대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울증상은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우울증은 중등기 청소년의 우울증보다 훨씬 높아서 대학생들이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및 대학생의 우울감은 2005년 29.9%에서 2007년 41.3%로, 자살충동은 2005년 22.6%에서 2007년 23.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 청소년의 우울감 28.5%, 자살률 6.9%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이혜순, 2010). 금명자와 남향자(2010)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 신입생 85.4%가 외로움(72.4%), 불안(65.6%), 우울·무기력(62.0%), 분노(48%), 자살충동(15.4%) 등 부정적 정서를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김민경, 2011b; 김태순·강차연, 2008)와 남녀 차이가 없다는 결과(김상욱, 2010)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의 연령의 경우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정신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은영·윤치근·양유정, 2012), 이지혜(2014)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연령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경우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다(Bloom, 1966; 최송미, 1999재인용). 경제수준 역시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문제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대학생이 적게 받는 대학생에 비해 우울성향이 높고(김숙자, 2003), 경제상태가 좋은 대학생이 좋지 않은 대학생에 비해 정신건강이 좋다는 결과도 있다(유은영 외, 2012). 이상의 연구들을 토대로 성별, 학년, 성적, 경제수준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3. 가정폭력 경험과 정신건강 및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1) 가정폭력 경험과 정신건강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의 관계는 폭력 유형 및 정신건강 차원에 따라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관련성을 입증해 왔다. 김순규(2007)는 정서적 폭력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영옥(2008)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폭력 및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비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우울과 불안, 적대감, 대인예민성의 증상을 더 심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의 직접적 경험과 더불어 부모님의 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들 또한 일관되게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연옥과 박인아(2000)는 아내학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방임 모두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김형모 외(2007)는 가정폭력 목격 아동의 경우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가질 위험은 높았으나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 영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폭력성의 경우 일부 아동에게만 나타내고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폭력적인 성향을 띄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 60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신선인, 2008)에 의하면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목격하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우울, 불안, 염려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가정에서 양육된 아동청소년은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성장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고 폭력을 직접 경험한 집단은 정서적, 행동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장덕희, 2010; Kitzmann et al., 2003). 김동주(2003)는 부모간의 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폭력 장면을 직접 관찰하거나 목격하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않고, 단순히 부모간의 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상황만으로도 불안, 짜증 등 성장기의 심리내적·사회적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의 직·간접적인 경험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사회적 지지 자원(social support resources) 자원은 환경적인 변인의 하나로서, 1970년대 중반부터 생활사건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널리 입증되어 왔다(Cohen & Wills, 1985). Aneshensel & Stone(1982)은 사회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이 강화되는 반면, 사회적 지지 자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응력이 손상되어 우울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이 신체적, 심리적 적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정서반응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 자원은 일반적으로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된다(Cohen & Hoberman, 1983).

한편 사회적 지지 자원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주 효과 모델(main effect model)로서 각 개인이 처한 스트레스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지 자원이 심리내적·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은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안정감,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적응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완충효과 모델(buffering effect model)로서 스트레스가 낮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심리내적·사회적 적응상의 문제에 별 차이가 없으나,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완충작용을 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에의 영향을 완화한다는 것이다(이영자·김태현, 1999). 이러한 두 가지효과는 서로 상호배제적 경험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지지 자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Cohen & Willis(1985)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완충효과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경은과 정덕희(2000)는 가족 내에 자신을 지지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정폭력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가족원이 존재한다면 심리내적·사회적 손상으로부터 회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Stets(1991)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학대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대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아(2005)는 부부갈등과 자녀의 부적응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완충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옥형(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자원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완충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장수미와 김주현(2012)은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주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사회적지지의 완충적 역할을 입증하였다. 이정숙 외(2013)는 대학생의 학대 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가족지지와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김민경(2011a)은 가족학대경험은 사회적 지지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주고 있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이 행복을 느끼는데 있어 가족학대경험의 영향력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가족학대 경험은 당연히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사회적 지지라는 중재요인이 존재한다면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녀폭력 경험과 부부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가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8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 목적에 맞는 표본을 표출하기 위해 비 확률표집 방법인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소재 해 있는 4년제 대학생 800명을 대상으로 2016년 3월10일부터 2016년 3월 25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격적인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설문문항의 수와 설문지의 구성, 검사 소요시간이 적당인가, 설문지 내용 중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없는지 알아 보기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설문조사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문항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여 적용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설문지 문항의 배치를 조정하여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문항들을 설문지의 앞부분에 배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포된 80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잘못 표기된 설문지를 제외한 747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하여 Kopta & Lowry(1997)가 개발하여 박명실(2005)이 변안한 정신건강 척도(BHQ-14)를 사용하였다. 우울과 불안 문항으로 하여 전체 8문항으로 '나는 최근에 나 자신이 싫어서 속상했다', '나는 최근에 집중의 어려움으로 괴로웠다.', '나는 최근에 대부분 슬픔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나는 최근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나는 최근에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괴로웠다', '나는 최근에 매우 심한 감정 기복으로 힘들었다', '나는 최근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었다', '나는 최근에 긴장감으로 힘들었다'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을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의 Cronbach alpha값은 .88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 가정폭력 경험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가정폭력 경험은 자녀폭력(부모로부터의 폭력 경)과 부부폭력(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Straus(1990)가 개발한 갈등관리행동척도인 CTS(Conflict Tactics Scale)와 CTS2(Straus et al.,1996)를 청소년에 맞도록 재구성한 장덕희(2001)가 사용한 설

문지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대학생들은 자신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항목에 대해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먼저 자녀폭력 경험(정서적 폭력 7문항, 신체적 폭력 6문항)은 13문항이며 각 문항은 부모가 '나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나에게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거나 몸에 상처가나도 신경을 써주지 않았다', '나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한 적이 있다', '내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 찬 적이 있다', '나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다', '나의 몸을 세계 밀친 적이 있다', '나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나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나를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나를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 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로 질문하였으며 각 문항에 전혀 없다(1점), 1년에 한두 번(2점), 한 달에 한두 번(3점), 일주일에 1회 이상(4점), 거의 매일(5점)의 5개 범주로 이루어졌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폭력경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부폭력 목격(정서적 폭력 목격 5문항, 신체적 폭력 목격 8문항)의 13문항은 부모님 간에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화가 나서 발로 방바닥을 차거나 방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악의에 찬 말을 한 적이 있다', '물건을 집어 던지려 한 적이 있다',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다', '몸을 세계 밀친 적이 있다',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 '빗자루나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사정없이 마구 때린 적이 있다',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를 목격한 경험으로 질문하였

으며 5점의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이 전혀 없다(1점), 1년에 한두 번(2점), 한 달에 한두 번(3점), 일주일에 1회 이상(4점), 거의 매일(5점)의 5개 범주로 이루어졌고,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경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에 대한 자녀 폭력의 Cronbach's α 값은 .89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사회적 지지 자원

본 연구에서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자원(Social support)도구와 장은정(2007)이 사용한 도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이 친구 친척 이웃 주변사람들로부터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원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각 하위영역은 정서적 지지 7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 정보적 지지 6문항의 4개 하위영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자원이 높음을 의미한다. 정서적 지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지지로 사랑, 공감적 경청, 신뢰, 관심 격려, 이해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적 지지는 필요시에 돈, 물건, 서비스, 시간 등의 제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적 지지는 문제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적 지지는 공정한 평가, 인격존중, 칭찬, 소질인정, 가치고양, 의사존중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사회적지지의 Cronbach's α 값은 .9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성별, 학년, 성적,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의 경

우 남자=1, 여자=0으로, 성적은 매우 좋음=4, 좋음=3, 보통=2, 나쁨=1로 가정의 주관적 경제수준은 높음=3, 보통=2, 낮음=1로 처리하였다.

〈표 1〉 측정도구 구성 및 신뢰도

변인		신뢰도
가정 폭력	부부폭력	.88
	자녀폭력	.89
사회적지지 자원		.91
정신건강		.88
통제 변인	성별, 학년, 성적, 경제수준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자녀폭력경험,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 사회적 지지 자원, 정신건강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를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조사대상자의 수는 총 747명으로 응답자들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은 37.8%, 여학생은 62.2%으로 여학생이 다소 높게 표집 되었다. 학년 분포를 보면, 1학년 39.3%, 2학년33.5%, 3학년 16.5%, 4학년 10.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은 만18세부터 29세까지 분포 되어 있으며 20세미만은 39.3%, 20~29세는 60.7%였으며 평균연령은 20.54세이다. 종교는 없다가 46.9%, 있다 53.1%로 나타났다. 주관적 가정경제수준에 대해서는 낮다 19.4%, 보통이다가 49.9%, 높다가 30.7%로 나타났다. 성적에 대해서는 매우좋음 12.8%, 좋음 40.7%, 보통이다가 34.7%, 낮은 편이다가 11.8%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내용	빈도	%
성별	남	282	37.8
	여	465	62.2
	합계	747	100.0
학년	1학년	290	39.3
	2학년	158	33.5
	3학년	185	16.5
	4학년	79	10.7
	합계	738	100.0
연령	20세미만	290	39.3
	20세이상	448	60.7
	합계	738	100.0
가족의 경제수준	높다	219	30.7
	보통	356	49.9
	낮다	194	19.4
	합계	739	100.0
성적	매우좋음	94	12.8
	좋음	299	40.7
	보통	255	34.7
	낮음	87	11.8
	합계	735	100.0

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 사회적 지지 자원, 정신건강의 수준

조사대상자의 가정폭력 경험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녀폭력 경험과 부부폭력 목격 경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자녀폭력 경험은 1.26점(sd=.33), 부부폭력 목격 경험은 1.30점(sd=.46)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자원은 3.83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 또한 3.50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이라고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표 3>.

<표 3> 가정폭력 경험, 사회적 지지 자원, 정신건강의 수준

구분	M	SD
자녀폭력	1.26	.33
부부폭력	1.30	.46
사회적 지지 자원	3.83	.73
정신건강	3.50	.85

한편, 가정폭력 경험 실태를 폭력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자녀폭력의 신체적 폭력 경험은 전혀 없음이 73.0%, 1년에 1~2회가 24.3%, 1달에 1~2회가 2.1%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경험한 정서적 폭력은 1년에 1~2회가 61.7%, 전혀 없음 31.0%, 1달에 1~2회가 5.3%, 1주일에 1회 이상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경우 신체 폭력 목격 경험은 전혀 없음이 73.4%, 1년에 1~2회가 23.6%, 1달에 1~2회가 1.8%로 나타났으며 정서 폭력 목격 경험은 1년에 1~2회가 53.0%, 전혀 없음 31.2%, 1달에 1~2회가 12.1%, 1주일에 1회 이상 3.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가정폭력 유형별 경험 실태

구분		N	%
자녀신체 폭력	전혀없음	544	73.0
	1년에 1~2회	181	24.3
	1달에 1~2회	16	2.1
	1주일에 1회 이상	4	.5
자녀정서 폭력	전혀없음	231	31.0
	1년에 1~2회	460	61.7
	1달에 1~2회	40	5.3
	1주일에 1회 이상	15	2.0
부부신체 폭력	전혀없음	541	73.4
	1년에 1~2회	174	23.6
	1달에 1~2회	13	1.8
	1주일에 1회 이상	9	1.2
부부정서 폭력	전혀없음	230	31.2
	1년에 1~2회	391	53.0
	1달에 1~2회	89	12.1
	1주일에 1회 이상	28	3.8

3. 가정폭력 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가정폭력 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표 5〉와 같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간의 폭력 목격은 조절변수인 사회적 지지 자원과 부적 상관관계를 정신건강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녀폭력도 사회적 지지 자원, 정신건강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부부폭력과 자녀폭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과 정신건강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부부폭력이 높을수록 자녀폭력도 높아지며 사회적 지지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을수록 의미를 의미하며 부모간의

폭력과 자녀폭력이 심각할수록 정신건강은 나빠지며 낮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Pearson의 r 값이 .80을 넘는 상관관계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를 살펴본 결과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5〉.

한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가정폭력 경험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만을 분석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본 연구에서 변수들이 연속변수이기 때문에 위계적 회귀분석에 따라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한 다음,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분석 결과와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후의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때, 독립변수와 상호작용 항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중심화(Mean-Centering)의 방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자녀폭력 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모형은 $p < .001$ 수준

〈표 5〉 변인들 간 상관관계

구분	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폭력	사회적 지지 자원	정신건강
부모간의 폭력 목격	-			
자녀폭력	.59**	-		
사회적 지지 자원	-.26**	-.39**	-	
정신건강	-.20**	-.28**	.26**	-

**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 자녀폭력, 사회적 지지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1단계의 설명력은 15.8%였고, 본 모델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 자원, 자녀폭력,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폭력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남학생이 정신건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2단계의 설명력은 16.2%로 설명력이 0.4%로 증가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과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폭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

둘째,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과 정신건강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을 보면 모형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단계에서는 성별, 학년, 성적, 경제수준, 부모간의 폭력, 사회적 지지 지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다. 1단계의 설명력은 13.9%였고, 본 모델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 자원, 자녀폭력, 성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좋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2단계의 설명력은 14.1%로 설명력이 0.2%로 증가하였다. 1단계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과 사회

〈표 6〉 자녀폭력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b	β	VIF(tolerance)	b	β	VIF(tolerance)
(상수)	3.250			3.264		
성별 (남자=1, 여자=0)	.150	.086*	1.050 (.952)	.149	.086*	1.050 (.952)
학년	.001	.002	1.117 (.896)	-.001	-.001	1.123 (.890)
성적	.049	.050	1.042 (.959)	.051	.051	1.043 (.959)
주관적 경제수준	.004	.004	1.049 (.953)	.008	.007	1.057 (.879)
자녀폭력	-.365	-.184***	1.239 (.807)	-.438	-.220***	2.087 (.878)
사회적 지지 자원	.321	.279***	1.228 (.815)	.331	.287***	1.270 (.787)
자녀폭력 × 사회적 지지 자원				-.191	-.106*	1.705 (.587)
adj. R ²	.158			.162		
R ² change	-			.004		
F	16.83***			14.57***		

* $p<.05$, ** $p<.01$, *** $p<.001$

적 지지 자원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7>.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지지 자원은 자녀폭력 경험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에서는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보조적 기법인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변인 수준에 따른 가정폭력(자녀폭력경험)과 정신건강의 평균치에 대한 비교분석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 자원의 평균값(mean=3.83)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지 자원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대상자를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에서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의 평균 간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

적 지지 자원이 높은 집단에서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보다 낮은가를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 자원이 높은 집단(M>3.83)에서는 자녀폭력의 평균값이 1.21이고 정신건강 평균값은 3.65이었다.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M≤3.82)은 가정폭력 평균값이 1.40이며 정신건강의 평균값은 3.33이다. 사회적 지지 자원이 높은 집단의 경우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의 평균값이 낮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 지지 자원이 낮은 집단에 비해 가정폭력과 정신건강 사이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7>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

	Model 1			Model 2		
	b	β	VIF (tolerance)	b	β	VIF
(상수)	3.257			3.251		
성별	.139	.081	1.051 (.951)	.140	.082	1.052 (.951)
학년	.002	.004	1.106 (.904)	.002	.005	1.108 (.902)
성적	.095	.096*	1.034 (.967)	.094	.095*	1.036 (.966)
주관적 경제수준	-.062	-.059	1.044 (.958)	-.064	-.061	1.046 (.906)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	-.294	-.174***	1.148 (.871)	-.263	-.156**	1.651 (.782)
사회적 지지 자원	.280	.253***	1.147 (.872)	.270	.243***	1.279 (.956)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 × 사회적 지지 자원				.042	.036	1.830 (.646)
adj. R ²	.139			.141		
R ² change				.002		
F	14.01***			12.06***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노출경험(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폭력)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회적 지지 자원과 같은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에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토대로 가정폭력 경험 대학생들이 부정적 경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 하는데 유용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이론적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747명으로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정신건강을 종속변수, 가정폭력 노출 경험(부모간의 폭력 목격, 자녀폭력)을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 자원을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절변수로 하여 연구의 개념적 틀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 경험을 살펴보면, 자녀폭력 경험은 1.26점(sd=.33), 부모간의 폭력 목격 경험은 1.30점(sd=.46)으로 나타났다. 폭력 경험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자녀폭력의 신체적 폭력 경험은 전혀 없음이 73.0%, 1년에 1~2회가 24.3%, 1달에 1~2회가 2.1%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경험한 정서적 폭력은 1년에 1~2회가 61.7%, 전혀 없음 31.0%, 1달에 1~2회가 5.3%, 1주일에 1회 이상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폭력의 경우 신체 폭력 목격 경험은 전혀 없음이 73.4%, 1년에 1~2회가 23.6%, 1달에 1~2회가 1.8%로 나타났으며 정서 폭력 목격 경험은 1년에 1~2회가 53.0%, 전혀 없음 31.2%, 1달에 1~2회가 12.1%, 1주일에 1회 이상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자녀의 60~70%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지난 1년간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하였거나,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폭력 경험 중 주로 정서적 폭력의 경험과 목격 경험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자원은 3.78점

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또한 3.42점으로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녀폭력 경험과 정신건강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단계에서는 성별, 학년, 경제수준, 학업성적, 자녀폭력, 사회적 지지 자원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다. 1단계의 설명력은 15.8%였고, 본 모델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 자원, 자녀폭력, 성별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폭력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남학생이 정신건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2단계의 설명력은 16.2%로 설명력이 0.4%로 증가하였다. 1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고, 2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과 상호작용 항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폭력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과 정신건강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의 설명력은 13.9%였고, 본 모델에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한 변수는 사회적 지지 자원, 자녀폭력, 성적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폭력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성적이 좋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2단계의 설명력은 14.1%로 설명력이 0.2%로 증가하였다. 1단계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그러나 2단계에서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과 사회적 지지 자원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미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지지 자원은 자녀폭력 경험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부모간의 폭력 목격경험에서는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학생들의 가정폭력 경험에서 특히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폭력경험과 부모님간의 정서적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대체로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근정(2004), 이상준(2006), 여성가족부(2013)의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사회의 정서적 폭력 수준은 다소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폭력에서의 신체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또한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볼 때(김순규, 2007; 남영옥, 2008) 정서적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폭력의 경험이 있어도 사회적 지지 자원이 많다면 정신적 건강이 좋게 유지된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 지지 자원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장덕희(2001)과 정인숙(2003), 장수미와 김주현(2012), 김민경(2011a)의 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통해 가정폭력 경험 자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보호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천 현장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사회적지지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라는 위험상황에서도 예방 과학적 접근으로 정신건강의 긍정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고 보호요인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강점관점 접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가정폭력 경험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혼과 가족생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에 있는 청년기의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안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은 주로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이나 혹은 직접적인 부모의 아동 학대 차원에서만 다루어져 왔을 뿐이다. 2014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에서도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한 18세미만 자녀를 중심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제한적 관심과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가정폭력의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단계의 생애적 개입이 필요하며 특히 건강한 결혼과 가족생활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한 사회적 지지 자원의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적 접근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 선배배간의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봉사 및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참여,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지지 자원이 강화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 대학생들의 사회적지지 자원이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대학 내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대학생의 발견 및 위기를 관리해주는 응급서비스(hot-line service)와 의뢰서비스(referral service), 그리고 무기력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내의 학생상담센터에서 가정폭력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지원서비스 구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정서적 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개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기관, 가정폭력 상담소 등 여러 기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사회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개별 가정사로 취급하고,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가정폭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는 등의 폭력에 허용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폭력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의 사후조치가 활성화된다면 폭력감소 효과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가정폭력 경험은 대학생의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이후 취업 및 경제적 독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문제에 대한 대학 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위한 상담과 교육과 같은 공식적 지원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교양교육과정에 가정폭력예방 교육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으로 대상으로 한정하여 임의 표집한 자료의 결과이므로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성을 지닌다. 향후에는 대학교의 특성별(국·공립, 사립, 전문대) 또는 지역(서울 경기권, 지방)에 따라 그 특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단위의 확률적 표집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경험을 측정할 때, 가정폭력 경험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폭력을 측정하는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세부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척도의 수정, 보완 혹은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폭력의 종류와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 지속 여부와 같이 가정폭력의 다양한 상황이 반영된 가정폭력 측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정신건강의 완충시키는 사회적지지 자원의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측정도구의 개

발도 요청된다. 또한 사회적지지 자원의 개인 내적 자원과 개인 외적 자원의 측면을 고려한 보호요인의 규명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금명자·남향자(2010). 전국 대학신입생의 대학 생활 기대 및 정신건강. *인간이해*, 31(1), 105-127.
- 2) 김근정(2004). 빈곤지역 가정폭력 경험 아동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난영(2008).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동주(2003). 아내폭력에 노출된 청소년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처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민경(2011a). 대학생의 가족학대경험, 가족스트레스와 행복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가족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41-54.
- 6) 김민경(2011b).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부정적 정서와 사회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2), 101-130.
- 7)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상옥(2010). 대학생의 자아분화,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숙지(2003). 부모의 이혼과 청소년 자녀의 우울 및 심리사회성숙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순규(2007). 보호요인이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 59(2),

- 251-275.
- 11) 김연옥 · 박인아(2000). 가정폭력의 유형별 관련 성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103-127.
 - 12) 김재엽 · 이서원(1999). 청소년의 부모폭력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3), 1-14.
 - 13)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 연구. 6/7권, 1-32.
 - 14) 김재엽 · 조학래 · 양혜원(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15) 김재엽 · 양혜원 · 김희수(2005).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분석: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0, 67-101.
 - 16) 김재화(2007). TV 코미디 선호도와 수용자의 생활 만족도 및 정신건강 관계의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7) 김지현(201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김한나 · 김혜련 · 최윤신(2011).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과 부모의 알코올 중독이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117-129.
 - 19) 김형모 · 이숙진 · 서해정 · 최은정 · 김은정 · 문순희(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18(1), 53-77.
 - 20) 김태순 · 강차연(2008). 고등학생 우울과 공격성. 심리치료: 다학제적 접근, 8(1), 85-100.
 - 21) 남영옥(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재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5(2), 199-218.
 - 22) 박명실(2005). 대학생 자살위험 집단유형의 분류, 평가 및 집단 상담치료 적용.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3)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4) 법제처 www.moleg.go.kr/
 - 25) 신선인(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 ·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 26) 여성가족부(2010).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
 - 27) 여성가족부(2013). 2013 가정폭력실태조사 보고서.
 - 28) 이경은 · 정덕희(2000). 폭력가정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7(1), 95-123.
 - 29) 이상민 · 남숙경 · 이미경(2009).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대학상담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63-384.
 - 30) 이상준(2006). 가정폭력 경험 청소년의 탄력성과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1) 이영미 · 민하영 · 이윤주(2005). 부모간 갈등과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후기 청소년의 심리 · 사회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53-62.
 - 32) 이영자 · 김태현(1999). 단독가구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韓國老年學, 19(3), 79-93.
 - 33) 이옥형(2012).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1), 29-57.
 - 34) 이은희(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48.
 - 35) 이정숙 · 구형선 · 조인주(2013). 대학생의 성장기 아동학대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구조적 관계 분석 - 가족지지, 친구지지, 자아정체감

- 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1), 143-168.
- 36) 이지혜(2014).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취업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 자아분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이해순(2010). 청소년의 자아분화 수준 및 가족기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6(4), 297-303.
- 38) 이호택(2012).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여성연구, 83(2), 101-147.
- 39) 유은영 · 윤치근 · 양유정(2012). 일부 지역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13(1), 274-283.
- 40) 장덕희(2001). 가정폭력경험 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1) 장덕희(2010). 보호요인이 가정폭력경험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1), 21-43.
- 42) 장성화 · 진석연(2009). 기독교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 사회 적지 지 및 정신건강 비교.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179-200.
- 43) 장수미 · 김주현(2012). 가정폭력피해경험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 : 긍정적 태도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1), 173-202.
- 44)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45) 정승교 · 김춘길(2010). 대학생의 우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 성인간호학회지, 22(1), 41-50.
- 46) 정인숙(2003). 가정폭력경험 아동의 심리 · 사회적 적응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쉼터 및 보호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7) 정진아(2005). 중학생의 진로 성숙도와 심리적 성장 환경에 따른 학습 태도의 차이.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8) 최송미(1999). 한 · 중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9) Aneshendel, C. S. & Stone, J. D.(1982).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buffering model of social suppor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12), 1392-1396.
- 50) Bancroft, L. & Siverman, J. G.(2002). The batterer as parent: Addressing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on family dynamics. New York: Sage.
- 51) Boles, S. M. & Miotto, K.(2003). Substance abuse and violence: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ve and Violence Behavior, 8(2), 155-174.
- 52) Bridge, J. A., Goldstein, T. R. & Brent, D. A. (2006). Adolescent suicide and suicidal behavior. Th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72-394.
- 53) Drum, D. J. & Denmark, A. B.(2012). Campus suicide prevention: Bridging paradigms and forging partnership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20(4), 209-221.
- 54) Brunstein-Klomek, A., Sourander, A. & Gould, M.(2010). The association of suicide and bullying in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A review of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search findings.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5(5), 282-288.
- 55)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 Bulletin, 98(2), 310-357.
- 56)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57) Cohen, S. & McKay, G.(1984).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A theoretical analysis. In A. Baum, S. E., Taylor, & J. E., Singer (Eds.), pp. 253-267.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NY: Hillsdale.
- 58) Godblatt, H.(2003). Strategies of coping among adolescents experiencing interparental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8), 839-870.
- 59) Holt, S., Buckley, H. & Whelan, S.(2008). The impact of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A literature. Child Abuse & Neglect, 32(8), 797-810.
- 60) Hunt, J. & Eisenberg, D.(2010). Mental health problems and help-seeking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6(1), 3-10.
- 61) Ibrahim, A. K., Kelly, S. J., Adams, C. E., & Glaenbrook, C.(2012).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of depression preva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7(3), 391-400.
- 62) Kitzmann, K. M., Gaylord, N. K., Holt, A. R. & Kenny, E. D.(2003). Child witness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2), 339-352.
- 63) Lyubomirsky, S., Kasri, F. & Zehm, K. (2003). Dysphoric rumination impairs concentration on academic task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3), 309-330.
- 64) Ringeisen, H., Casaneuva, C. E., Urato, M. & Stambaugh, L.F.(2009). Mental health service use during the transition to adulthood for adolescents reported to the child welfare system. Psychiatric Services, 60(8), 1084-1091.
- 65) Stets, J. E.(1991). Cohabiting and marital aggression: The role of social isol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69-680.
- 66) Straus, M. A. & Gelles, R. J.(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67) Thoits, P. A.(1985).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possibilities.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4, 51-72.
- 68) Wolfe, D. A., Crooks C. V., Lee, V., McIntyre-Smith, A. & Jaffe P. G.(2003). The effects of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and critiqu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6(3), 171-187.

- 투 고 일 : 2016년 5월 31일
- 심 사 일 : 2016년 7월 21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10일